

ICOLD 2026 멕시코 연차회의 참관기 및 2027 대전 연차회의를 위한 벤치마킹 전략



김명현 한국수자원공사
과장
tpc13th@kwater.or.kr

ICOLD 2026 Mexico Review and Benchmarking Strategies for
ICOLD 2027 Daejeon

요약 (Abstract)

2026년 5월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개최된 ICOLD 제94차 연차회의는 전 세계 댐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기술과 지식을 교류하는 장이자, 2027년 대한민국 대전에서 열릴 ICOLD 연차회의를 위한 중요한 실전 벤치마킹 무대였다. 본 기고문은 과달라하라 현지에서 관찰한 행사 운영체계, 등록 및 안내 시스템, 학술·전시 프로그램, 네트워킹 및 문화 행사의 장단점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전 컨벤션 센터(DCC)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동선 설계, 디지털 트윈 및 최신 물관리 기술을 접목한 선도적인 기술 세션 구성, 그리고 한국 댐 기술과 K-Culture와 연계한 기술투어, 글로벌 홍보 전략 등 내년도 대전 연차회의의 성공적인 기획을 위한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키워드: ICOLD 2027, 벤치마킹, 국제학술대회, 행사기획, 한국대담회

Keywords: ICOLD 2027, Benchmarking, International Symposium, Event Planning/organizing, KNCOLD

1. 들어가며

멕시코 멕시코시티 공항을 거쳐 과달라하라로 향하는 긴 환승 여정은 내년 한국에서 개최될 대형 국제행사를 직접 준비해야 하는 실무자로서의 기대감과 막중한 책임감이 교차하는 시간이었다. 2026년 5월 23일부터 28일까지 과달라하라 엑스포(Expo Guadalajara)에서 개최된 이번 ICOLD 연차회의에는 총 87개국에서 1,330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미국, 캐나다, 일본, 인도, 중국, 호주 순으로 등록자가 많았으며, 한국에서도 24명이 등록하여 자리를 빛냈다.

최근의 글로벌 컨퍼런스는 단순한 논문 발표를 넘어 전력, 데이터, AI 등 이종 산업 간의 융합과 네트워킹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기후위기 시대의 댐 안전과 스마트 관리가 화두인 지금, 이번 멕시코 연차회의 현장 곳곳을 누비며 내년 대전 행사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운영 방안을 모색하였다.

2. 현장 운영 및 인프라 벤치마킹

2.1 행사장 공간 구성: 통합 배치의 장점과 단점

이번 과달라하라 엑스포(Expo Guadalajara) 행사장 기획의 핵심은 '살론 과달라하라(Salon Guadalajara)'라는 거대한 1개의 메인 공간 안에 정기총회(GA), 심포지엄, 기술 전시를 모두 통합 배치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간 구성은 1,330명에 달하는 다국적 참가자들이 외부 건물로 이탈하거나 분산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훌륭한 장점으로 작용했다. 대규모 인원이 한 공간에 머무름으로써 참석자 간의 우연한 만남과 자연스러운 밀착 교류가 수시로 발생하여 국제 행사에 걸맞은 활기찬 네트워킹 분위기가 행사 기간 내내 유지될 수 있었다.

반면, 단일 대형 공간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방식에는 물리적인 인프라의 한계도 분명히 존재했다. 천정까지 닿지 않는 개방형 임시 격벽으로 70석 규모의 심포지엄 발표장 7개를 나누다 보니, 옆 세션의 소리가 고스란히 넘어오는 소음 간섭 문제가 발생하여 발표 집중도가 다소 저하되었다. 또한 층고가 높은 공간 특성상 행사장 내부의 기본 조명과 프로젝터 빛이 간섭을 일으켜 발표 자료 화면이 흐릿하게 맺히는 아쉬움이 있었다. 더불어 넓은 행사장 규모에 비해 종합 안내판이 1개소만 설치되어 있어, 초기 참석자들이 넓은

공간 안에서 원하는 세션장을 찾는 데 짧지 않은 이동 거리와 혼선을 겪어야 했다.



[그림 1] ICOLD 2026 멕시코 행사장(Expo Guadalajara)

2.2 등록 데스크 및 스마트 앱(Whova) 운영의 효율성

등록 데스크는 행사장 입구 1개소에 사전등록 8개 라인과 현장등록 2개 라인을 구축하여 08시부터 18시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가장 돋보였던 장점은 스마트 모바일 앱인 'Whova'의 적극적인 도입과 명찰 QR코드의 활용이다. 방대한 세부 프로그램 일정, 행사장 지도, 실시간 공지사항이 모두 앱을 통해 정확하게 전달되어 종이 인쇄물을 효과적으로 대체했다. 특히 단기 교육(Short Course)이나 기술 투어 등 사전 결제가 필요한 유료 부대행사의 경우, 입장 시 참석자 명찰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참석 권한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리하는 효율적인 디지털 운영 체계를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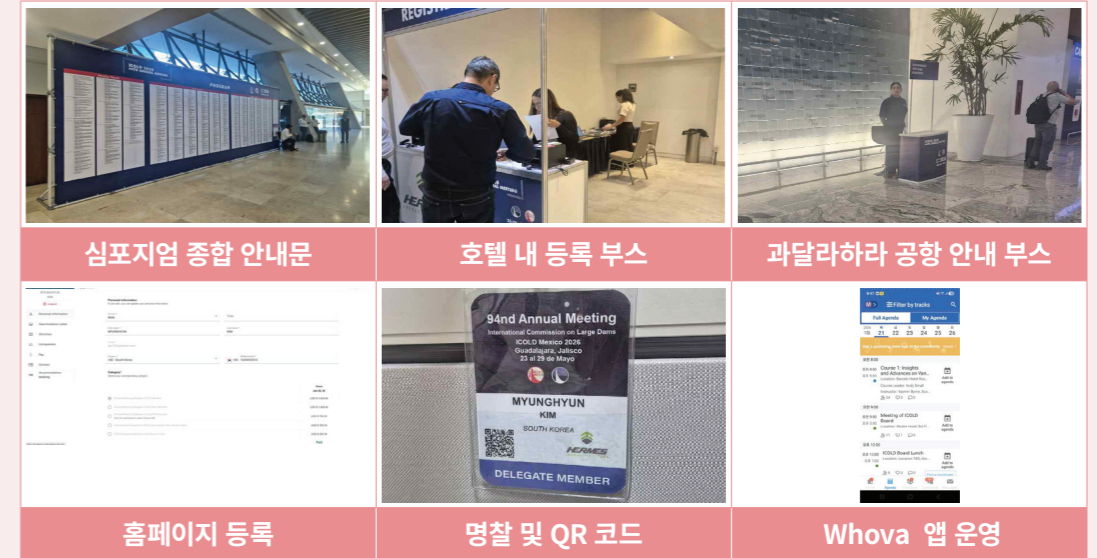
다만 세부적인 등록 및 안내 서비스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 공항에 설치된 웰컴 안내 부스는 찾기 힘든 위치에 배치되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주요 공식 행사인 개회식의 경우 1,000석 규모의 웅장한 세팅을 갖추었으나 진행 측면에서 다소 서투른 모습이 노출되었고, 제공되는 동시통역 기기를 대여하기 위해 참석자들이 본인의 신분증을 직접 맡겨야 하는 다소 번거로운 절차가 요구되었다.



등록부스

기념품

행사장 안내문



심포지엄 종합 안내문

호텔 내 등록 부스

과달라하라 공항 안내 부스

홈페이지 등록

명찰 및 QR 코드

Whova 앱 운영

[그림 2] ICOLD 2026 멕시코 등록 및 운영 관련 현황

3. 학술 프로그램 및 전시 운영 상세 분석

3.1 치밀하게 준비된 TC 회의 및 심포지엄 운영

TC 워크숍 및 회의는 ICOLD의 방대한 기술 분과를 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공간 배분이 이루어졌다. TC 규모에 따라 대형 8개소, 중형 4개소, 소형 15개소 등 동시간대에 최대 24개의 회의장이 가동되었다. 중회의실은 72석 규모의 클래스룸 형태로, 소회의실은 18석 규모의 U자형 테이블로 세팅되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럽, 아프리카, 북중남미, 아시아 등 4개 지역위원회 회의는 기존 TC 대형 회의장을 그대로 재활용하여 공간 조성 시간을 절약했다. 덧붙여 Zoom이나 Teams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화상회의의 경우, 회의장에서 제공하는 인터넷망(wifi)을 이용하였으며, 회의 진행에 충분한 인프라였으나 각 위원회에서 준비를 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었으며 화상회의 환경을 사전에 구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메인 학술행사인 심포지엄에서는 총 241편의 논문 발표와 25편의 라이트닝 스피치가 7개 발표장에서 08시부터 18시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다. 발표장에는 별도의 좌장석(Chair)을 세팅하지 않고, 3명의 연사가 각각 20분씩 연속으로 발표한 뒤 15분간 통합 질의응답(Q&A)을 갖는 방식으로 1개 세트를 묶어 속도감 있게 운영한 것이 특징이다. 다

만 1열 연사 대기석 및 좌장석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그림 3] ICOLD 2026 멕시코 TC 회의 및 워크숍 행사장 준비 상황

3.2 참여를 극대화한 전시관 배치 전략

기술 전시관은 심포지엄 행사장과 벽 하나 없이 완전히 동일한 메인 홀 공간 내에 조성되었다. 멕시코 전력청(CFE) 등 멕시코 기업, 캐나다 공동관, 각종 댐 관리 기술 기업들이 참여하여 약 40여 개의 부스를 알차게 꾸렸다. 전시장 위치 선정은 이번 행사의 가장 성공적인 전략 중 하나였다. 전시 부스와 심포지엄 공간이 통합되어 있다 보니,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휴식 시간에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전시관 구역으로 유입되었다. 참가자들의 발걸음이 전시 부스로 직접 연결되면서 기업들의 전시 참여 효과와 홍보 만족도를 크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림 4] ICOLD 2026 멕시코 기술전시장 및 한국대표단 전시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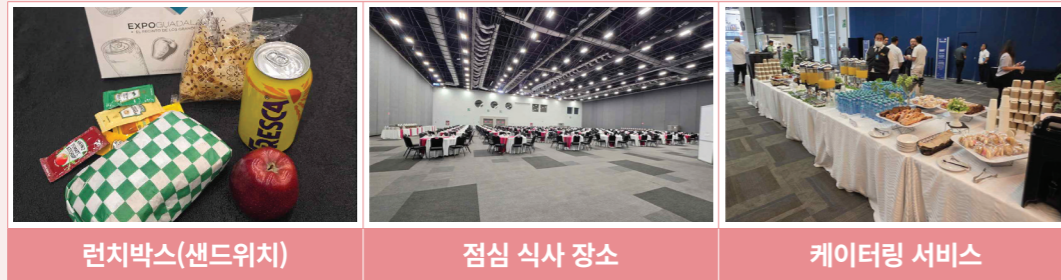
4. 네트워킹, 문화 행사 및 부대 프로그램 평가

4.1 아쉬운 점심식사 및 만족스러운 케이터링 서비스

다국적 전문가들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식음료 서비스다. 이번 대회에서는 점심 식사로 뷔페식 2회와 런치박스 5회가 제공되었으며, 커피와 다과 등 케이터링 서비스는 행사장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되었다. 행사 기간 내내 커피와 다과가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1일 2회씩 리필되며 제공되었고, 이를 통해 참석자들이 커피를 마시며 회의장 앞이나 전시 부스에서 끊임없이 네트워킹을 이어갈 수 있는 최고의 유희유 역할을 해냈다.

점심 식사로 제공된 런치박스(샌드위치)의 경우 치킨과 치즈 2종류로 메뉴가 다소 단조로웠으며, 수요 예측 오차로 인해 수량이 부족해지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조직위가 행사장 내에 급히 피자를 제공하는 'Pizza Time'을 기민하게 추가하여 식음료 부족

문제를 유연하게 대처한 점은 위기관리 측면에서 좋은 참고 사례가 되었다.



런치박스(샌드위치) 점심 식사 장소 케이터링 서비스

[그림 5] ICOLD 2026 멕시코 런치박스 및 식사, 케이터링 서비스 현황

4.2 자유로운 연회 및 문화 공연 장단점

공식 만찬과 문화 행사는 멕시코 특유의 열정과 다채로운 구성을 보여주었다. 환영 만찬>Welcome Reception)은 전시장 중앙에서 스탠딩 테이블을 두고 주류와 함께 라이브 밴드 공연을 60분간 진행하여 자유롭고 경쾌한 첫인상을 남겼다. 환송 만찬(Farewell Dinner)은 야외 공간에 연회식 테이블을 세팅하고 3코스 요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형탈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축제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또한 1,200석 규모의 훌륭한 극장(PALOCO) 시설에서 관람한 멕시코 전통 무용과 마리아치 밴드 공연은 멕시코의 훌륭한 문화 자산을 알리기에 충분했다.

문화 공연의 질적 우수성과는 별개로 이동 편의성 측면에서는 명확한 단점이 노출되었다. 참가자들이 버스에 탑승하여 극장까지 약 40분간 이동해야 했으며, 막대한 버스 운영 및 공연장 대관 비용이 투입된 것에 대비하여 참가자들의 체력적 피로도 가중으로 전체적인 효과가 다소 반감되었다.



환영 행사 환송 만찬 멕시코 전통 문화 공연

[그림 6] ICOLD 2026 멕시코 환영 및 환송 행사, 전통 문화 공연 현황

4.3 참신했던 YPF와 기술 투어의 시사점

단일 코스로 진행된 기술 투어(Technical Tour)는 라예스카 댐(La Yesca Dam) 발전소 견학과 유명 데킬라 산지 투어를 접목했다. 토목 기술 현장 견학과 개최국의 고유한 문화를 하루 일정으로 엮어낸 이 기획은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훌륭한 아이디어였다. YPF(청년 전문가 포럼) 행사 기획 또한 우수 했다. 단순한 포럼에 그치지 않고 '멘토와의 점심(Mentoring Lunch)' 세션을 마련해, 각 테이블 중앙에 멘토링 번호와 시니어 멘토의 명패를 미리 세팅해 두었다. 이는 처음 만나는 세대 간의 어색함을 허물고 자연스럽게 기술적 조언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한 세심하고 완벽한 디테일이었다.

기술 투어의 질적 한계도 드러났다. 투어 코스가 1개로 제한된 상태에서 200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댐 현장에서 엔지니어 간의 심도 있는 기술적 질의응답(Q&A)이나 밀착 브리핑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단순한 시설 관람 수준에 그친 점은 내년 행사 기획 시 그룹별로 분산된 투어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라예스카댐 본체 멘토링 오찬 YPF night

[그림 7] ICOLD 2026 멕시코 기술투어 및 YPF 주요 행사 현황

5. ICOLD 2027 대전 연차회의를 위한 벤치마킹 요소

첫째, DCC의 공간적 특성을 보완하는 동선 연결과 자체 인프라 강화

과달라하라 엑스포의 단일 행사장 체제가 주는 밀착감은 행사를 기획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무척 부러운 요소였다. 이와 달리 내년 대전 연차회의가 열릴 대전 컨벤션 센터(DCC)는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으로 공간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 분리된 공간을 어떻게 극복하고 참가자들에게 하나의 통일된 축제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고민이다. 입구 배너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과 디지털 사이니지를 적극적으로 연동해 직관적인 동선 안내를 돕고, 멕시코에서 발생했던 행사장 간 소음 간섭이나 프로젝터 화질 저하 문제를 반면교사 삼아, DCC 각 홀의 독립된 AV 시스템과 LED 스크린을 꼼꼼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세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K-엔지니어링의 강점을 살린 특화 프로그램 기획

멕시코 연차회의를 참관하며, 학술 콘텐츠의 차별화가 곧 행사의 위상과 흥행을 결정짓는 핵심임을 다시 한번 체감했다. 내년 대전 대회에서는 대한민국이 강점을 지닌 최신 기술을 전면에 내세워 돌파구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평소 현업에서 깊이 다루고 있는 AI, 디지털 트윈, 에너지 등의 최신 댐 기술의제를 글로벌 무대에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단기 교육(Short Course)이나 기술 워크숍 세션으로 풀어내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러한 실무 밀착형의 선도적 세션을 잘 조직한다면, 전 세계 엔지니어들의 학술적 갈증을 채워주고 산업계의 적극적인 발걸음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술자 친화적인 투어와 링크드인을 활용한 글로벌 아웃리치

멕시코의 기술 투어가 현장에서의 심도 있는 기술적 교류가 부족했던 점은 뼈아픈 시사점을 주었다. 대전 연차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다채로운 댐을 소개하고 전문가를 포함한 밀도 높은 프로그램 구성과 K-Culture와 연계한 문화 체험 코스로 기술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행사의 성공적인 흥행을 위해서는 전 세계 댐 커뮤니티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붙잡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비즈니스 네트워킹 플랫폼인 링크드인(LinkedIn)을 활용하여, 우리 댐 공학이 가진 고유한 역사적·기술적 내러티브를 영문 게시물로 꾸준히 연재하는 글로벌 아웃리치 캠페인 기획을 준비하고 있다. 실무선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이러한 소통이 쌓인다면, 해외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대전 대회 등록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 믿는다.

6. 맺음말

이번 ICOLD 2026 멕시코 과달라하라 연차회의 참관은 대규모 국제 대회의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 치열하게 작동하는 실무적 운영 메커니즘을 낱알이 해부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뛰어난 장점은 적극 수용하고, 노출된 단점은 대전의 상황에 맞게 보완 및

개선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내년 봄, 과학도시 대전에서 전 세계 댐 전문가들이 K-Engineering의 우수성과 K-Culture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도록, 한국대담회 회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지와 헌신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